

ASAN REPORT

미국인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인식 변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응 전망

장지향, 강충구

2025년 5월



Asan Report

**미국인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인식 변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응 전망**

장지향, 강충구

2025년 5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 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 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저자

장지향

장지향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자 지역연구센터 센터장이다. 외교부 정책자문 위원(2012~2018년)을 지냈고, 현재 산업부, 법무부,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문학사, 정치학 석사 학위를,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중동 정치경제, 정치 이슬람, 비교 민주주의와 독재, 극단주의 테러와 안보, 국제개발협력 등이다. 대표 저서로 중동정치를 비교 분석한 《최소한의 중동 수업》(시공사 2023), 클레멘트 헨리(Clement Henry)와 공편한 *The Arab Spring: Will It Lead to Democratic Transitions?* (Palgrave Macmillan 2013), 논문으로 “팔레스타인 지도부의 정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전망” (아산 이슈브리프 2022), 『중동 독재 정권의 말로와 북한의 미래』(아산리포트 2018), “Disaggregated ISIS and the New Normal of Terrorism” (Asan Issue Brief 2016), “Islamic Fundamentalism”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2008)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파와즈 게르게스(Fawaz Gerges)의 《지하디스트의 여정》(아산정책연구원 2011)이 있다.

강충구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자 여론조사팀 팀장이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재직했고, 현재 통일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방법론, 서베이(통계)자료 분석 등으로 사회과학분야 측정 문제, 여론과 그 동학에 관심이 있다. 다수의 서베이 보고서를 출판했고, 『한국언론학보』, 『평화연구』 등의 학술지에 연구논문(공저)을 게재했다.

목차

요약	06
I. 들어가며	10
II.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식	12
1. 미국인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인식	13
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전후 미국인의 인식 변화	20
III.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대응	33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	33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책	43
IV. 나가며	49
부록: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식 조사	52

그림

[그림 1] 미국인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위협 인식	16
[그림 2]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호 인식	19
[그림 3] 미국인의 이스라엘 군사 대응에 대한 의견	21
[그림 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	25
[그림 5] 전쟁 발발 전후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동정 인식	27
[그림 6] 미국인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에 대한 의견	48

표

[표 1]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동정 인식	23
[표 2] 지지정당별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동정 인식	28
[표 3] 미국인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해법에 대한 의견	46

요약

2000년대 초반부터 축적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은 이스라엘에 더 우호적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 정계 내 유대계 영향력, 복음주의 기독교계의 친이스라엘 정서, 중동 내 이스라엘의 전략적 가치 등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내 팔레스타인 동정론은 이례적으로 확산됐다. 전쟁이 길어지고, 이스라엘의 지나친 군사 작전이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위기를 심화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미국 내 여론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지 않았지만, 그 추세가 반대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원과 휴전 협상 실패에 대한 미국 내 아랍계·무슬림·청년층 및 정책 커뮤니티의 실망, 중동 지역 여론 악화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적인 휴전 촉구, 가자지구 인도주의 지원 확대, 전후 평화 구상 구체화 등으로 외교 전략을 급히 조정하기도 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미국 여론의 단기 변화폭이 컸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고려해 정책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여론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동 정책에 주는 함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교에서 여론보다 핵심 지지층 입장을 우선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친이스라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통상 여론이 미국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새 여론 지형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국 내 여론 변화 속에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기 중동 정책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나타난 미국 내 여론 변화는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자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2022년 35%에서 2024년 52%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장기화된 전쟁이 이스라엘-이란 간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높이며,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데 따른 반응이다. 전쟁 기간 이란의 무장 대리세력인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군 등이 하마스와 연대해 이스라엘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고, 이에 이스라엘은 ‘제2의 독립전쟁’을 선언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로 인해 ‘중동

전면전' 우려가 확산되면서 대중의 안보 불안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미 주요 언론과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이란에 전략적 기회를 제공해 역내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 국방부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중동 지역에 병력을 증파하고 항공모함을 전개해 대응했다.

둘째, 짧은 기간 팔레스타인에 대한 동정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 강도가 높아지며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참사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졌다. 실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동정 인식은 기존의 25% 안팎에서 2025년 3월 33%까지 상승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휴전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점도 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미국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한 미국인의 급증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동 정책의 안보 중심적 접근을 정당화하는 핵심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강경한 군사작전을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닌, 중동 지역의 안정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로 간주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인도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친이스라엘 노선을 고수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대학가에서 확산 중인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해, 이를 단순한 인도주의적 연대가 아닌 하마스의 폭력을 미화하고 반유대주의 정서를 조장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시위가 증오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보고, 관련 활동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전쟁 발발 후 확산된 팔레스타인 동정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반전 여론의 확산이 2024년 대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공화당 유권자층의 여론 변화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공화당 지지층 내 '이스라엘에 대한 동정' 응답 비율은 2023년 10월 64%에서 2025년 58%로 소폭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팔레스타인 동정론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시하는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는 여전히 친이스라엘 성향이 유지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경합주 내 아랍계 및 무슬림 유권자 동원에 일정 부분 신경을 기울였으나, 당선 후에는 기존 핵심 지지층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초

를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랍계가 밀집한 미시간주 디어본에서 42%의 득표율(해리스 36%)을 기록한 결과는, 트럼프 본인에게 자신의 단호한 리더십이 진영을 넘어 일정 수준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 내 팔레스타인 동정론 확산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동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핵심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향후 친이스라엘 노선을 더 강화할 수 있다.

- 2004년 이래 최소 32%, 최대 58%의 미국인은 양측 간 갈등을 자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봤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양측 간 갈등을 심각한 위협으로 본 미국인은 52%였다. 이는 2004년 최고치(58%)에 가장 근접했다. 2000~2005년이 제2차 인티파다(Intifada, 팔레스타인 민중봉기)로 팔레스타인의 자살 폭탄 테러,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과 보안장벽 설치 등으로 폭력과 보복이 이어지던 혼란의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하다.
- 2001년 이래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장기 우호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럼에도 2023년 전쟁 발발 전후로 이스라엘 우호 인식이 10%p 하락했고, 2024년 최저치(58%, 이스라엘 우호)를 기록한 점은 주목할 결과이다. 반면, 대팔레스타인 우호 인식은 최저 11%에서 최고 30% 범위에 있었다. 2024년 미국인의 팔레스타인 우호 인식은 18%로 장기 평균에 가까웠다.
-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후 이어진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에 대한 미국인의 평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대응이 적정했다고 본 비율은 2023년 11월 38%에서 2024년 34%로 감소했다. 한편, 이를 지나쳤다고 본 응답은 2024년 1월 50%까지 상승했다가 2024년 9월 42%로 하락하며 2023년 11월의 40%와 유사해졌다.
- 2001년 이래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동정 인식은 시기별로 달랐다. 2010년을 기점으로 미국인 60% 이상은 이스라엘 사람을 동정한다고 답했고, 양측 간 분쟁이 이어졌지만 이 경향은 2019년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후,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동정은 연이어 하락한 반면,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동정은 상승했다. 2019년 이후 이스라엘인을 동정한다는 미국인이 줄면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동정 인식이 늘었다. 이 비율은 2022~2024년 30% 내외를 기록했다(2022년 26%, 2023년 31%, 2024년 27%).

- 2023년 전쟁 발발 전후인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동정 인식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락세, 팔레스타인은 상승세를 보였다. 전쟁 직후 이스라엘 사람을 더 동정한다는 미국인은 2023년 10월 48%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이 수치는 하락해 2024년 11월 31%가 됐다. 반대로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동정은 2023년 3월 10%대에서 2024년 하반기 20%에 가까운 비율까지 상승했다.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이 지나쳐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참사로 이어졌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 미국인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인식 변화는 2024년도 미국 대선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서 일부 드러났다. 아랍계·무슬림 유권자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원과 휴전 협상 실패를 강하게 비난했기에 부통령인 해리스 후보를 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을 대부분 지지했던 이들은 2024년 초부터 '#바이든을 버려라(#Abandon Biden)' 캠페인을 벌였고, 민주당 경선에서도 낙선운동을 이어갔다. 2024년 10월 아랍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더 성공적으로 해결할 후보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39%, 해리스 33%로 당시 트럼프 후보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동에서도 자국 이익에 기반한 거래식 외교, 지불 능력을 중시하는 동맹관, 신고립주의를 내세우며 민주당 정부가 전통적으로 강조하던 동맹·인권·민주주의 가치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것이다. 역내 안보 상황이나 동맹 우방국이 처한 군사 위협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 우선주의에 맞춰 역내 군사 개입을 줄이고 기존에 주둔하던 미군 철수를 서두르면서 탈중동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다.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이자 자국을 타도 대상으로 삼는 이란의 강경파 지배 연합에 압박 정책을 펼칠 것이다. 핵 개발 프로그램, 역내 무장 폭력시 육성 등 이란의 군사 모험주의와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경제 제재와 군사 위협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이란과 거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핵 협상 재개를 위한 채널을 병행해 여지를 남기는 이중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걸프 산유국과 군사 안보협력을 적극 도모할 것이다. 이들 산유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무기 거래 및 방산 협력에서 지불 능력에 근거한 거래주의 방식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산유 왕정에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기에 양국 협력은 심화할 것이다.

I. 들어가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은 20세기 초반부터 중동 나아가, 국제정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문제이다. 이는 유대 국가 설립을 지지한 영국의 1917년 뵐푸어 선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임 통치하면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과 유대인 정착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됐다.

1948년 5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하자 이웃 아랍국가들이 전쟁을 선포해 제1차 중동 전쟁(1948~1949년)이 일어났고, 팔레스타인 난민 75만여 명이 발생했다.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둘러싸고, 세 차례의 중동전쟁과 숭한 국지전이 있었다. 평화협정을 맺기도 했으나 폭력은 형태를 달리하며 이어졌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당사자 말고도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국가 간의 대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각각 지원하는 강대국 간 싸움으로 확대됐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어진 중동전쟁에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영국, 프랑스가 직접 참여했고, 미국과 옛 소연방이 깊이 관여했다.

1967년 ‘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서안지구, 시리아 골란고원, 가자지구, 이집트 시나이반도를 점령했는데, 이는 중동의 지정학적 환경을 크게 바꿨다. 이스라엘의 영토 점령은 국제법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유대인 정착촌 건설과 팔레스타인 자치권 축소 등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 그 사이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 2000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회담 등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평화구축 노력이 이어졌지만, 양측 간 신뢰 부족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 실제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심 우방국이자 중동 내 중요 행위자로 이 갈등에 지속 개입했다. 하지만, 1995년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유대 극우주의자에 의해 암살되면서 오슬로 평화협정이 약화되더니 2000년 제2차 인티파다(Intifada, 팔레스타인 민중봉기)가 발발하며 협정은 사실상 붕괴됐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2003년 제네바 이니셔티브(Geneva Initiative)와 로드맵 평화안(Roadmap for Peace)을 통해 ‘두 국가 해법(Two-states solution)’을 제시했고, 2005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특히 2014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회담이 무산되면서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됐다. 2020년에는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중동 평화안을 내놓았지만 양측 간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 향방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주권을 승인하는 등 친이스라엘 정책을 강하게 펼쳤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1기 때와 유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음에 서는 2023년 10월 7일에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후 미국 내 여론 변화가 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2000년대 이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변화를 분석하며, 특히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미국인의 단기 인식 변화가 이례적으로 컸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친이란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은 미국 내 여론 지형을 흔들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미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미국인이 급증했다. 또 젊은 층과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 아랍계와 무슬림 커뮤니티에서도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들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동정론은 빠르게 확산했다. 이 변화는 통상적으로 미국의 중동 정책에 중대한 함의를 갖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인 친이스라엘 성향, 보수 공화당 유권자층의 요구에만 민감하게 대응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와 마찬가지로 친이스라엘 정책 노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II.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식

2023년 10월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의 충돌 양상으로 변모해 확산 위기를 거치며 15개월간 이어졌다. 미국과 이스라엘 타도를 외치며 역내 헤게모니 장악을 노리는 이란은 가자지구의 하마스를 포함해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이슬람저항군, 시리아의 군소 민병대 등 친이란 무장 프록시를 육성해왔다. 이번 전쟁에서도 이란과 이란의 프록시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하마스에 연대 선언을 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로켓 및 드론 공격을 이어왔다. 2024년 7월 대선 캠페인 중 당시 트럼프 후보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에서 “자신의 취임식이 열릴 2025년 1월 20일 전까지 전쟁을 끝내라”고 단호하게 주문했다. 11월 초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와의 휴전 협정을 서둘렀고, 2025년 1월 15일 15개월간의 전쟁 끝에 휴전 협정이 전격 체결됐다. 여전히 휴전 결렬의 가능성은 높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인질과 수감자 교환이 시작됐다.

미국에 불리한 전 세계 여론 속에서도 미 행정부는 과거부터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였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군사, 경제적 지원을 제외하고도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전쟁(1차 중동전쟁), 1956년 수에즈 전쟁(2차 중동전쟁), 1967년 6일 전쟁(3차 중동전쟁), 1973년 욘키푸르 10월 전쟁(4차 중동전쟁) 등에서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동안 국내외 여러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친 셈이다.

물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스라엘 지원 정책이 당의 이념과 주요 지지층에 따라 접근 방식과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적 공존을 목표로 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유대인 정착촌을 반대하며 균형적이고 외교적 접근을 선호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스라엘의 군사 안보를 절대적으로 중시하면서 ‘두 국가 해법’에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양당 모두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 양국 결속을 다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여기에는 여러 배경이 있다. 먼저 여러 유대계 단체 등은 미국 정계에서 미국의 대중동 정책을 친이스라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광범위한 로비활동을 한다. 실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이스라엘을 공개 지지한 정치인도 다수 있다. 이는 로비 단체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뜻으로 대선에서 이들의 공개 지지선언이 대통령 당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러한 미국 내 유대인 영향력에 더해, 중동 내 이스라엘의 전략적 가치, 복음주의 기독교도의 친이스라엘 정서와 같은 종교적 배경은 또 다른 요인으로 손꼽힌다.

1. 미국인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인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은 오랫동안 중동은 물론 전 세계를 갈라놓는 분열의 원인이 되어왔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적인 이스라엘 공격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력 대응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국제 여론을 더욱 양분시켰다. 당시 가자지구의 이란 프록시 조직인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 하마스가 자신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가는 역내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판을 뒤흔들기 위해 이스라엘을 상대로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해 소규모 키부츠 24곳과 뮤직 페스티벌에서 민간인 900여 명, 군인 300여 명을 살해하고 250여 명을 납치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제2의 독립전쟁’을 선포해 하마스 궤멸과 인질 구출을 목표로 대대적인 지상전을 시작했다. 그러자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군과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조직이 자국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하마스 연대를 선언했다. 이들 조직은 반미, 반이스라엘 이슬람 혁명 수출을 국시로 삼는 이란의 무장 프록시 조직으로 ‘저항의 축’이라 불리며 이란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

결국,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가자지구는 인도주의 재앙에 처했다. 전쟁 발발 1년 후, 가자지구 인구 90%인 190만 명이 피란길에 올랐고 절반 이상이 가족과 친척을 잃었고 95%가 기아 위협에 처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은 2만 6,000여 명, 하마스 대원이 1만 4,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아무리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썼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시가전 역사상 비전투원 사상자 비율이 높은 부끄러운 전쟁으로 평가받고 있다.¹

2024년 9월 하마스와 전쟁 중인 남부 전선이 잠잠해지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새로운 질서(New Order)’ 작전으로 이란 프록시 수뇌부를 참수해 역내 힘의 구도를 완전히 재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실제로 헤즈볼라 수뇌부는 전멸했고 일반 대원의 50%가 제거됐다. 또 7월 하마스의 알카삼 여단 사령관 무함마드 데이프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폭사하고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가 이

스라엘의 비밀작전으로 암살당했다. 10월에는 하마스 군사 조직 수장이자 기습 공격 설계자 야히야 신와르도 사망했다. 2024년 내내 중동에서는 1년 넘게 이어진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이를 둘러싸고 대결하는 이스라엘-이란-이란 프록시 간 무력 충돌로 혼돈과 불확실성이 지배했다.

국제사회의 중재 시도에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은 오래 이어져 왔다. 시기별로 미국인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위협 인식은 변했다. 비교적 중요한 위협이 아니란 의견이 10% 내외로 지난 20년 간 변화폭은 적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에 따라 미국인의 위협 지각은 나뉘었다. 중동 내 갈등이 소규모 분쟁, 무력 충돌, 전쟁 등 가시적으로 나타난 경우에 이를 심각한 위협(critical threat)으로 본 비율은 최고 58%(2004년)까지 늘었다. 이 시기는 미군이 참전한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2021년), 이라크 전쟁(2003~2011년)이 이어진 때였다. 또 제2차 인티파다(2000~2005년)가 일어나 하마스의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자살 폭탄 테러가 급증하고 이스라엘군의 강경 진압이 격렬하게 이어지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던 때이기도 하다.

이후 중동 역내 갈등은 2010년 중반까지 이어지며 미국인의 위협 인식은 40% 중반 내외를 유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미국인의 위협 인식이 비교적 높지 않았다. 이는 로켓과 미사일 및 폭발물 풍선 등을 이용한 도발로 소규모 무력충돌은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 양측 간 대규모 전면전으로 확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1. 장지향, “미국의 對이스라엘·하마스전 외교전략: 변화와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4-13; “Has the war in Gaza radicalised young Palestinians?” *The Economist* (October 3, 2024),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24/10/03/has-the-war-in-gaza-radicalised-young-palestinians>; Atlantic Council experts, 2024, “One year after Hamas’s October 7 terrorist attacks, here’s how the region has changed,” *MENASource, Atlantic Council* (October 4, 2024),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menasource/one-year-after-hamass-october-7-terrorist-attacks-heres-how-the-region-changed/>; Daniel Byman, 2024, “A War They Both Are Losing: Israel, Hamas and the Plight of Gaza,” *Online Analysi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June 4, 2024), <https://www.iiss.org/online-analysis/survival-online/2024/06/a-war-they-both-are-losing-israel-hamas-and-the-plight-of-gaza/>; Scott Neuman, “1 year after Hamas attacked Israel, the conflict grows more dangerous than ever,” *NPR Special Series: A year since Oct. 7* (October 7, 2024), <https://www.npr.org/2024/10/07/g-s1-26381/hamas-israel-hezbollah-gaza-leban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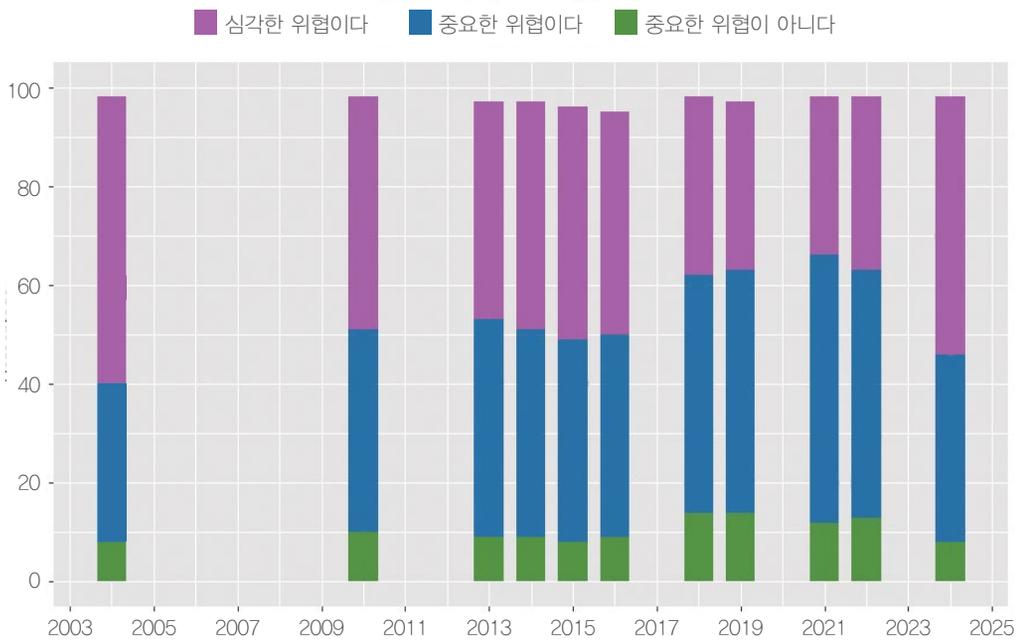
그러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역대 최대 규모의 무력 충돌로 인한 사상자 수가 2024년에 이미 4차 중동전쟁 사상자 규모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미국인의 위협 인식도 52%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04년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미국 내 중동 지역 갈등에 대한 위협 인식이 그만큼 컸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지만, 미국인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위협이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반면, 2018~2022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중요 위협(important threat)으로 간주한 비율이 50% 내외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는 이전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실제 2024년, 미국인 가운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심각한 위협으로 본 비율은 2022년 대비 17%p 상승하며 조사를 시작한 이래 단기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35%→52%).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살해당하거나 인질로 납치된 미국인과 미국·이스라엘 이중국적자는 45여 명에 달했다.²

나아가 여기에는 장기화된 전쟁이 이스라엘-이란 간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높이며,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높인 탓도 있어 보인다. 전쟁 기간 이란 무장 대리세력인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군 등이 하마스와의 연대해 이스라엘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고, 이에 이스라엘은 ‘제2의 독립전쟁’을 선언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미국인 사이에 ‘중동 전면전’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보 불안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³ 당시 미 주요 언론과 안보 전문가들은 이 갈등이 이란에게 전략적 기회를 제공해 역내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 국방부도 이 우려를 반영해 중동 지역에 병력을 증파하고, 항공모함을 전개했다.⁴

2. “How Many Americans Have Been Killed by Hamas, Before, and After October 7?” *American Jewish Committee News* (September 5, 2024) <https://www.ajc.org/news/how-many-americans-have-been-killed-by-hamas-before-and-after-october-7>.

3. Pew Research Center, “Social Media and News Fact Sheet,” *Pew Research Center* (September 17, 2024), <https://www.pewresearch.org/journalism/fact-sheet/social-media-and-news-fact-sheet/> 그러나 2025년 5월 현재까지 중동 지역 내 역대 최대 규모 무력충돌이 완전히 멈추지 않았고, 양측에서 사상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갈등 위협 인식이 2004년 최고치(58%)에 미치지 못한 점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근래 매체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이는 보통의 미국인이 전쟁, 인명피해 정보를 제한적으로 접한 탓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미국인 절반 이상(54%)이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그림 1] 미국인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위협 인식⁵ (단위: %)

4. Anchal Vohra, "Iran is the only one likely to benefit from Hamas' attack on Israel," *Politico* (October 9, 2023); Daniel Byman, Seth G. Jones, and Alexander Palmer, "Escalating to War between Israel, Hezbollah, and Iran," *CSIS Briefs* (October 4, 2024); David Ignatius, "The Middle East is on the precipice of the wider war no one wants," *The Washington Post* (April 12, 2024); Robin Wright, "How Iran Really Sees the Israel-Hamas War," *Foreign Policy* (November 2, 2023); Thomas L. Friedman, "Israel: From the Six-Day War to the Six-Front War," *New York Times* (October 26, 2023); Yaroslav Trofimov, "Iran Exposed to Israeli Counterattack After Blows Against Its Allies," *The Wall Street Journal* (October 3, 2024).
5. Jeffrey M. Jones, "Americans' Views of Both Israel, Palestinian Authority Down," *Gallup* (March 4, 2024), <https://news.gallup.com/poll/611375/americans-views-israel-palestinian-authority-down.aspx> 문항은 다음과 같았다. Next, I am going to read you a list of possible threats to the vit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next 10 years. For each one, please tell me if you see this as a critical threat, an important but not critical threat, or not an important threat at all.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The conflict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1)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우호 인식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우호도(favorable, %)는 비교적 최근 급격하게 하락했다. 2001년 이래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우호도는 2023년까지 몇몇 시기를 제외하면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예외적으로 2005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각각에 대한 우호 인식이 전년 대비 10%p, 12%p 상승했는데, 이는 이라크전 등 대규모 역내 갈등이 해소된 영향으로 보인다. 2008년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 인식은 71%로 2007년 64% 대비 7%p 상승했다. 이는 앞선 변화와 상반되는데, 이 시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무력충돌이 벌어졌다.

전쟁이란 부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이스라엘 우호도가 높았던 것은 밀접한 미국-이스라엘 관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특수 우호관계에 있고, 미국 내 유대계 유권자가 선거 등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요인으로 고려해볼 만 하다. 또 전쟁이 장기화하며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전면전에 돌입했는데,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에 맞서는 무장조직이라는 점에서 공통의 적이다.

흥미롭게도 미국인의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우호도는 제로섬이 아니었다. 양자 간 무력 충돌 및 대규모 전쟁 등 가시적으로 격화한 갈등을 접한 미국인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호 인식은 별개로 움직였다. 역사적으로 뚜렷했던 미국인의 이스라엘 선호 편향은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미국인의 팔레스타인 우호 인식은 최저 11%, 최고 30% 사이에서 움직였다. 2021년 정점을 기록한 미국인의 대팔레스타인 우호 인식은 최근 3년간 악화했는데, 2024년에는 18%로 2000년대 초반 수준까지 하락했다.

미국인의 대팔레스타인 인식이 부정적인 데에는 하마스, 이슬라믹 지하드 등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의 테러, 불안정한 정치 체제가 원인으로 꼽힌다.⁶ 또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미국 내 대테러 담론이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⁷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오랜 기간 권위주의 리더가 연이어 통치하고 있다. 2004년까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 의장 출신인 야세르 아라파트가, 2008년

6. J Eytan Gilboa, "Americans' Shifting Views on the Palestinian-Israeli Conflict," *Middle East Quarterly* (Fall 2021), <https://www.meforum.org/middle-east-quarterly/americans-views-on-the-palestinian-israeli-conflict>.

11월부터 현재까지 아라파트의 후임인 마흐무드 압바스가 수반으로서 자치정부를 이끌고 있다. 2006년 총선에서 하마스가 승리하자 PLO의 최대 정파인 파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둘의 갈등은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 파타와 하마스의 정쟁으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자 두 지도부는 의회의 견제 없이 정부 요직을 독점했고 무장 강권 기구를 강화해 자신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와 언론을 탄압했다. 이처럼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끄는 파타와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조직 하마스로 분열해 각각 서안, 가자지구에서 기반 세력의 공고화에 집중했다. 서안과 가자지구 내 권위주의 통치가 강화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주요 쟁점은 이스라엘과의 대결이 아닌 부정부패, 빈곤, 실업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⁸

이 역사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미국인의 이스라엘에 대한 높은 호감은 일부 이해가 된다. 또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접근법에서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미 행정부의 초당적 친이스라엘 행보가 미국인의 이스라엘 우호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1년에서 2024년 사이 미국인의 이스라엘 우호 인식은 최저 58%, 최고 75% 범위에서 움직였다. 이스라엘 우호도 조사는 198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때도 미국인 49%가 이스라엘에 우호적이었다. 최고치는 1991년 1월로 79%가 우호적이라고 답했다. 물론 이스라엘 우호 인식이 2023년 68%에서 2024년 58%로 1년 사이 크게 하락했고, 이 수치가 2002년 최저치(58%)로 회귀한 점은 전쟁의 여파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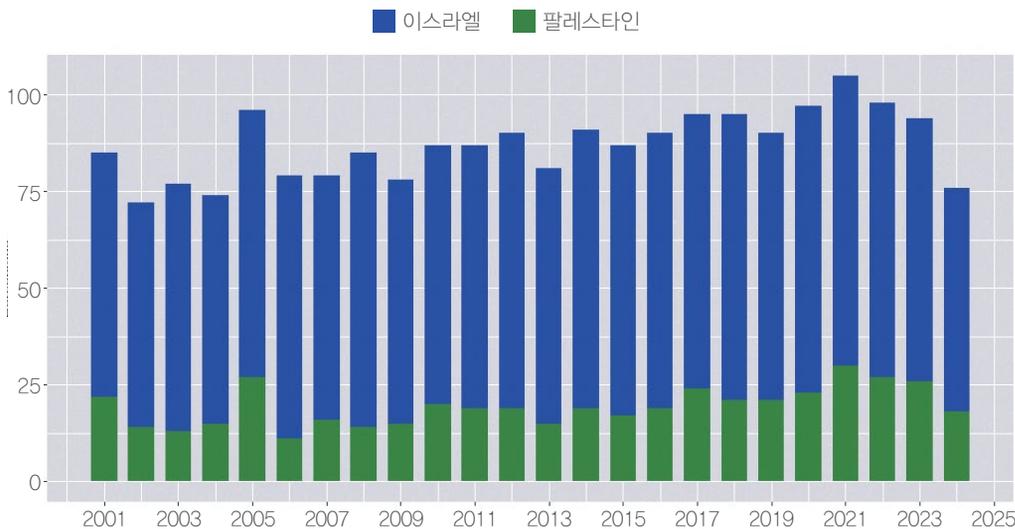
2000년 이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인의 우호도 격차(그림 2)는 2008년 최대 57%p, 2024년 최소 40%p를 기록했다. 2008년에는 미국인의 대이스라엘 인식이 개선된 반면, 팔레스타인 인식은 제자리걸음을 하며 그 격차가 컸다. 반대로 인식차가 좁혀진 시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우호 인식이 동반 하락한 때였다. 2024년 미국

-
7. Jenn Hatfield and Laura Silver, "U.S. adults under 30 have different foreign policy priorities than older adults," *Pew Research Center* (July 19, 2024),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4/07/19/us-adults-under-30-have-different-foreign-policy-priorities-than-older-adults/> 2024년 7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미국인 절반 이상이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답한 이슈는 기후변화(59%), 대량파괴무기 확산(56%), 테러공격(55%)이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최우선순위 해결 문제로 꼽은 비율은 31%였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전쟁보다 테러의 잠재 위협을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긴 셈이다.
8. 장지향, 유아름, "팔레스타인 지도부의 정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2-11.

인의 대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호 인식 격차는 2023년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두 수치가 모두 하락하며 2001년 이래 최소치(40%p)가 됐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이 크게 반전하지 않아 미국 내 친이스라엘 성향이 급감한 때 둘 사이 격차가 줄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인의 우호 인식 격차는 양측에 대한 우호 인식이 모두 감소한 시기에 미국인의 이스라엘 우호도가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좁혀졌다. 미국인의 우호 인식이 둘 다 감소했고,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도가 감소폭이 컸던 것은 이번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팔레스타인 측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이점은 장기화하고 있는 이번 전쟁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휴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이 양측에 대한 우호도를 모두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호 인식⁹ (단위: %)



9. Jeffrey M. Jones, "Americans' Views of Both Israel, Palestinian Authority Down," *Gallup* (March 4, 2024), <https://news.gallup.com/poll/611375/americans-views-israel-palestinian-authority-down.aspx> 문항은 다음과 같다. Next, I'd like your overall opinion of some foreign countries. What is your overall opinion of [Israel / the Palestinian Authority]? Is it very favorable, mostly favorable, mostly unfavorable or very unfavorable?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우호적 의견 비율(% of Very favorable or Mostly favorable)의 경우, 개별 문항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얼마나 우호적인지를 각각 물었기 때문에 조사 구조상으로 두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병렬적일 수 있었다.

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전후 미국인의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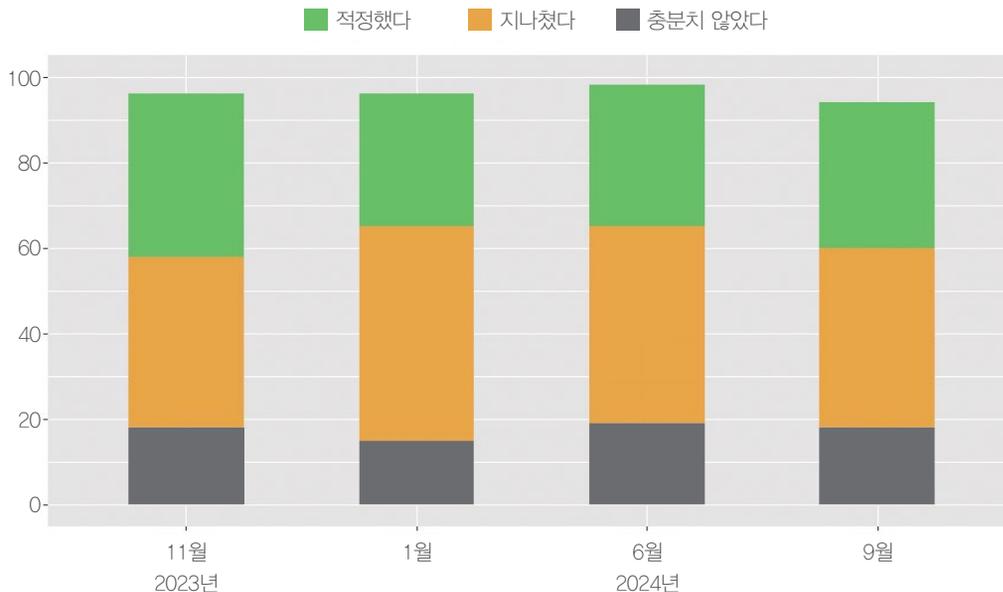
1) 이스라엘 군사 대응에 대한 의견

2023년 10월에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으로 시작됐지만, 미국인은 대체로 이스라엘의 맞대응을 부정적으로 봤다. 이례적이고 잔인한 하마스의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이 무력을 사용했지만, 양측 간 군사력 격차가 워낙 커서 이스라엘의 대응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절반 내외를 유지했다. 전쟁 직후에만 예외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응이 적정했다는 답이 상당수로 나타났다. 압도적 전력을 지닌 이스라엘의 공세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참사가 선을 넘자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전쟁 발발 후 1년 간 시기별로 달라진 점은 이스라엘의 대응을 적정했다고 본 미국인 비율이었다. 2023년 11월,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이 적정했다는 평가는 38%로 부정 시각(40%)과 차이가 없었다. 미국인은 전쟁 직후에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응해 대규모 무력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용인한 셈이다. 이후,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을 적정하다고 한 답은 2024년 내내 30% 초반에 머물렀다.

이는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이 지나쳤다는 평가(최저 40%, 최고 50%)와 큰 격차를 보였다. 전쟁 기간 내내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두둔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이스라엘의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한 탓도 있어 보인다. 또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위기가 인권단체, UN 등을 통해 알려지며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미국인 사이에서도 이스라엘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평가가 늘었다.

2023년 11월 미국인 40%는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이 지나쳤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2024년 1월 50%로 10%p 상승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며 민간인을 포함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본 시각이 높아진 것이다. 이후, 이 시각은 소폭 감소해 2024년 6월 46%, 9월 42%로 2023년 11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역사적으로 양측 간 무력충돌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 팔레스타인에 집중된 점도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에 대한 미국인의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미국인의 이스라엘 군사 대응에 대한 의견¹⁰ (단위: %)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동정 인식

2001년 이래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동정 인식(symathy, %)도 함께 살펴봤다. 그 결과, 이 역시 시기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한 이 조사에서 미국인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인(Israelis)에 대한 긍정 편향은 뚜렷했다. 2000년 이래 미국인 절반 이상은 팔레스타인인(Palestinians)에 비해 이스라엘인을 동정했다. 2000년 41%였던 이스라엘인을 더 동정한다고 답한 비율은 2001년 51%으로 10%p 크게 늘었다. 이 수치는 2003년 58%까지 상승했다가 2005년 52%로 하락했다. 미국인의 이스라엘인 동정 인식에서 나타난 단기 등락은 20여 년 이어진 조사에서 이례적이었다.

10. Jennifer Benz, Trevor Tompson and David Sterrett, "Public opinion of the Israel and Hamas conflict nearly a year after the October 7th attacks," AP-NORC Center (October, 2024), <https://apnorc.org/projects/public-opinion-of-the-israel-and-hamas-conflict-nearly-a-year-after-the-october-7th-attacks/>; Would you say the military response from Israel in the Gaza Strip has gone too far, been about right, or not gone far enough? (지나쳤다 Gone too far, 적정했다 Been about right, 충분치 않았다 Not gone far enough)

2010년을 기점으로 60%를 넘는 미국인의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동정은 2018년까지 소폭 등락을 거듭했으나 계속 60%대를 유지했다. 해당 기간 중동 내 갈등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이 이어졌지만 이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미국인의 동정 인식이 오차범위 내로 나타난 것은 2010~2018년 시기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뜻이다. 해당 기간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전반부로 미국이 친이스라엘 정책 행보를 펼친 때다.

유의할 변화는 2019년 전후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중동 문제에 대체로 소극 대응한 바이든 행정부 시기가 겹친다. 이 시기 미국인의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동정 비율(%)은 연이어 하락했다. 2019년 59%에서 2022년 55%까지 4%p 하락했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2023년에는 54%, 2024년 51%, 2025년에는 46%가 됐다. 2020년 60%에서 5년 연속 하락한 셈인데, 2000년대 초반 이래 이처럼 하락이 이어진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결과다.

2023년 10월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피해가 팔레스타인 측에 집중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동정 인식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부터 양측 간 분쟁에서 인적, 물질 피해가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 측에 크게 나타났지만, 2023년 전후로는 피해 규모가 과거 대비 훨씬 컸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동정 여론이 미국 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경향은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동정 인식을 분석한 아래 결과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미국인의 동정 인식은 대이스라엘인 인식과 반대로 움직였다. 2019년 이후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동정 인식이 줄면서 팔레스타인 사람을 동정한다는 비율이 늘었다. 이는 무엇보다 이 조사 문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화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팔레스타인 쪽으로 일방적이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소규모 분쟁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면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측 인명 피해가 컸던 것도 이와 관련 있어 보인다.

[표 1]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동정 인식¹⁾ (단위: %)

	이스라엘인(a)	팔레스타인인(b)	차이(a-b)
2000년	41	11	30
2001년	51	16	35
2002년	55	14	41
2003년	58	13	45
2004년	55	18	37
2005년	52	18	34
2006년	59	15	44
2007년	58	20	38
2008년	59	17	42
2009년	59	18	41
2010년	63	15	48
2011년	63	17	46
2012년	61	19	42
2013년	64	12	52
2014년	62	18	44
2015년	62	16	46
2016년	62	15	47
2017년	62	19	43
2018년	64	19	45
2019년	59	21	38
2020년	60	23	37
2021년	58	25	33
2022년	55	26	29
2023년	54	31	23
2024년	51	27	24
2025년	46	33	13

상대적으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팔레스타인 측을 더 동정한다는 응답은 2019년 21%에서 점차 상승해 2023년 3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4년 27%로 소폭 하락했다가, 2025년 33%로 반등하며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면전으로 이어진 분쟁 상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측 인명 피해가 이스라엘에 비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같은 기간 이스라엘 사람을 더 동정한다는 답이 줄면서 나타난 결과로 미국인이 이스라엘 사람 대신 팔레스타인 사람을 택했기 때문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동정 인식의 차이가 2022년 최초로 30% 이하가 됐다는 결과다.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을 각각 동정한다고 답한 미국인 비율 차이가 그만큼 좁혀졌다는 뜻이다. 역내 복잡한 역사를 고려한 결과로 보기 어렵지만, 단편적으로 인명 피해가 심각했던 팔레스타인 사람에 더 동정 인식을 보인 점으로 이해가 된다. 급진 무장세력인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했고, 이스라엘 측도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국내외 여론이 팔레스타인 측을 옹호하는 편으로 기운 점과 일관적이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을 동정한 비율은 근래에 한해, 전쟁에 의한 인명 피해 규모와 관련이 있었다. 물론 비교적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많이 나온 2008~2009년, 2014년에는 미국인의 양측에 대한 동정 인식이 거의 바뀌지 않은 결과는 주목할 점이다. 인명 피해가 큰 시기 미국인은 각종 매체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개연성이 높을 것이란 통념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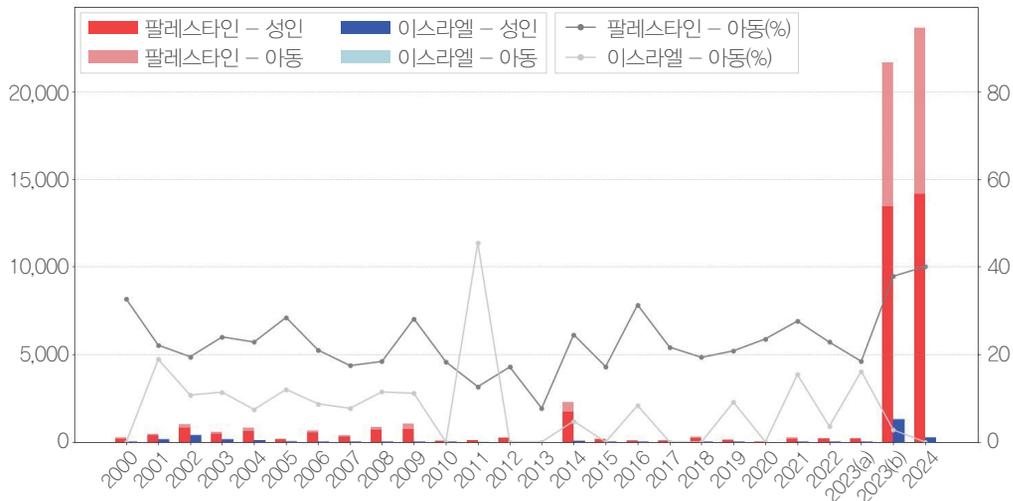
그러나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전쟁으로 이어진 2023년 이래로 양측의 전쟁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림 4]에 제시한 2000년 이후 양측의 인명 피해를 보면 2023년 10월 이후 사망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현재도 늘고 있다. 결국, 이번 전쟁이 과거보다 장기화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인의 정서를 차별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11. Megan Brennan, "Less than half in U.S. now sympathetic towards Israelis," *Gallup* (March 6, 2025), <https://news.gallup.com/poll/657404/less-half-sympathetic-toward-israelis.aspx> 문항은 다음과 같았다. In the Middle East situation, are your sympathies more with the Israelis or more with the Palestinians? (Percentages who say both, say neither or don't know are not available)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동정 (% of those who sympathies more with either the Israelis or the Palestinians); J Eytan Gilboa, "Americans' Shifting Views on the Palestinian-Israeli Conflict," *Middle East Quarterly* (Fall 2021), <https://www.meforum.org/middle-east-quarterly/americans-views-on-the-palestinian-israeli-conflict>.

보인다. 또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핵으로 무장한 이스라엘에 비해 팔레스타인의 박해에 대한 보도를 접하며 이에 더 공감했기 때문이란 해석도 있다.¹²

더불어,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양측 민간인 사망자에는 여성과 아동도 다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전쟁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 아동의 수가 전례 없이 많았다는 점도 미국인의 동정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2023년 전쟁 발발 후 아동 사망자는 팔레스타인 전체 사망자의 40%에 근접했다. 2023과 2024년 각각 8,244명, 9,459명으로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 수치는 미국인에게 팔레스타인을 더 동정하게 한 원인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선 시기 발생한 최대 규모 아동 사망자 수가 560명(2014년)이었다는 점만 봐도 이번 전쟁으로 인한 아동 등 민간인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여준다.

[그림 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¹³ (단위: 좌-명, 우-%)



12. 이정민, “청년은 왜 팔레스타인 편이 됐나…바이든의 ‘중동의 늪’”, KBS, 2024년 5월 7일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7038>.

13. “People killed since 2000: The Human Cost of the Conflict,” *Israel-Palestine Timeline* (December 3, 2024), <https://israelpalestinetimeline.org/charts/> [그림 4] 내 2023년 사망자 수는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 7일을 전후로 그 집계치를 구분했다. X축에서 2023(a)는 2023년 10월 6일까지, 2023(b)는 2023년 10월 7일 이후를 뜻한다.

3)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동정 인식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전후로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동정 인식은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을 각각 더 동정한다는 미국인 비율은 일시적으로 등락을 보였다. 아래의 [그림 5]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을 더 동정한다는 미국인 비율이 각각 하락, 상승세를 기록한 점, 둘째, 양쪽 모두를 동정한다는 비율이 다소 상승한 결과다. 앞서 살펴본 여론 변화와 대체로 일관된 결과였다.

먼저 이스라엘인을 더 동정한다는 미국인은 2023년 3월 31%로 비교적 높았다. 이 수치는 7월 42%, 10월 48%까지 급상승했다. 여기에는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중동 내 극단적 갈등을 재현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은 테러로 규정될 정도로 대규모 살육과 민간인 납치가 행해졌다. 이내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공습과 대규모 지상군을 동원해 하마스 절멸을 공언했지만, 하마스가 결사항전의지를 보이며 갈등이 격화한 탓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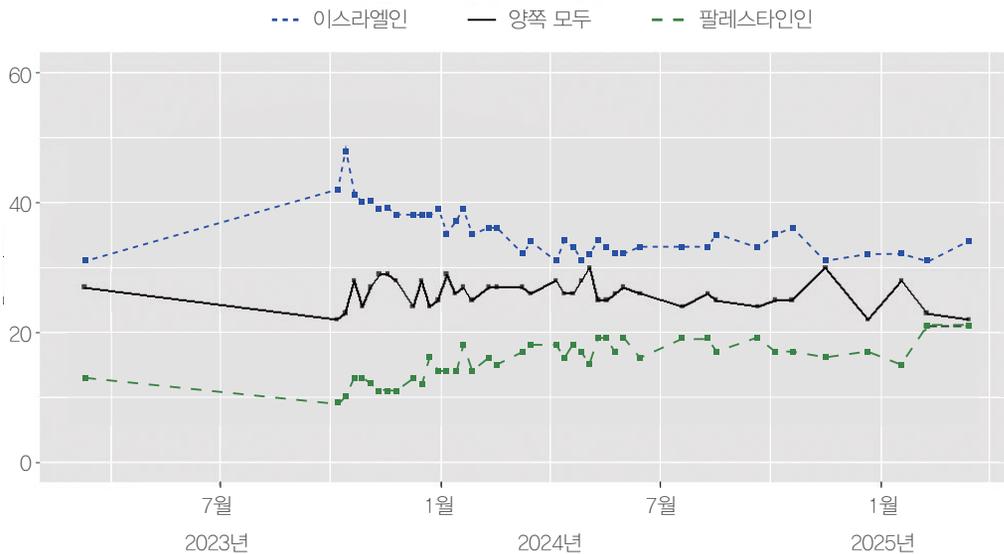
이후, 전쟁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드러난 미국인의 인식 변화는 흥미롭다. 이스라엘인을 더 동정한다는 비율은 2024년 1월 35%였는데, 이는 2023년 대비 10%p 내였지만 하락한 수치였다. 앞서 살펴본 전쟁 사상자 수가 팔레스타인 측에 집중된 점이 미국인의 인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봤듯이 미국인은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을 두고 전쟁 초기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듯했으나, 이후에는 이 인식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미국인은 전쟁의 상흔이 일방적으로 나타난 현실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인을 더 동정한다는 미국인 비율은 등락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2024년 내내 소폭의 하향세를 보였다. 2024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30%대 초반에 머물렀고, 11월에는 31%까지 하락하며 2023년 3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정리하면, 2023년 말 크게 상승한 이스라엘인에 대한 미국인의 동정 인식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서서히 줄어든 셈이다. 전쟁 발발 전후로 크게 변했을 것이라 추측과 달리, 전쟁 초기 일부 그 경향을 보였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는 기존 수준이 됐다.

같은 기간 팔레스타인 사람을 더 동정한 미국인은 2023년 말 10% 내외에서 소폭 상승했다. 2023년 3월 13%, 10월 10% 내외(9%, 10%, 13%)를 기록한 이 수치는 2023년 말까지 상승하며 12월 말에는 15% 전후(16%, 14%)가 됐다. 2024년 1월말 18%까지 오름세

를 보인 이 수치는 2024년 전반적으로는 상당한 상승을 기록했다. 예를 들면, 이 비율은 2024년 5월을 지나며 10% 후반까지 늘었고, 5~9월 사이에는 여러 차례 최고치(2025년 3월: 21%)에 근접했다(19%).

[그림 5] 전쟁 발발 전후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동정 인식¹⁴ (단위: %)



14. David Montgomery, "What Americans think about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YouGov US* (October 5, 2024), <https://today.yougov.com/politics/articles/50639-what-americans-think-about-the-israeli-palestinian-conflict> 문항(In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are your sympathies more with...? (%))에 대한 응답(이스라엘인(The Israelis), 양쪽 모두(About equal), 모름(Not sure), 팔레스타인인(The Palestinians)) 중 모름은 본문에서 제외했다. Jennifer Benz, Trevor Tompson and Marjorie Connelly, "As the Israel-Palestine conflict escalates, more see Israel as an ally," *AP-NORC Center* (November 8, 2023), <https://apnorc.org/projects/as-the-israel-palestine-conflict-escalates-more-see-israel-as-an-ally/> 미국 시카고 대학 여론연구센터(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는 2023년 11월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위와 비슷한 경향이 드러났다. 같은 질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모두(Both equally), 양쪽 모두 아니라는(Neither) 응답지를 제시한 결과는 양측에 대한 동정이 전쟁 발발 전후로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흥미로운 결과는 양쪽 모두를 동정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023년 8월 37%에서 2024년 9월 26%로 11%p나 줄었다는 점이다. 역대 갈등 당사자인 이들을 모두 동정하지 않는다는 답이 감소한 점은 어쨌든 양측이 겪고 있는 전쟁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을 더 동정한다는 미국인 비율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3년 3월 10%대였던 팔레스타인 동정 인식이 2024년 11월 20% 내외까지 상승 추세를 보인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번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인의 인식이 바뀐 결과로 해석된다. 요약하면, 미국인의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동정 인식에서 나타난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양쪽 모두를 동정한다는 응답은 2023년 3월 27%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비교적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2024년 11월 30%로 최고치를 기록한 결과다. 이는 같은 시점 이스라엘 사람을 더 동정한다는 비율(31%)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수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차별적으로 나타난 전쟁의 상흔과 관계없이, 장기화하고 있는 전쟁이 양쪽 모두를 동정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전후 조사에서 드러난 흥미로운 결과는 미국인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식이 정파별로 엇갈린 점이다. 즉 공화당 지지층 내 이스라엘 동정 인식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 50~60% 대를 유지했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 내 팔레스타인 동정 인식은 상승했지만 2025년 3월 21%에 그쳤고, 대체로 10% 중후반대를 오르내렸다. 전쟁 발발 후 전반적 추세는 2000년대 이래 최초로 팔레스타인 동정 여론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으나, 지지정당별 동정 인식 변화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00년 이래 장기간 이어진 미국인의 친이스라엘 성향은 여전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동정론 확산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성향을 고려해도 국내 여론 변화에 반하는 정책을 고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래 [표 2]에

[표 2] 지지정당별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동정 인식¹⁵ (단위: %)

	2023년 10월			2025년 3월		
	전체	지지정당별		전체	지지정당별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이스라엘인	42	<u>64</u>	42	34	<u>58</u>	34
양쪽 모두	22	13	22	22	17	22
팔레스타인인	9	3	9	<u>21</u>	10	<u>21</u>

제시한대로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공화당 유권자 내 인식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주는 함의가 크다. 쉽게 말하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만 고려해 정책을 펼친다면 표면적으로 나타난 전쟁 발발 후 여론 변화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여서다.

4) 미국 여론 변화 속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책

여론은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중동 정책은 주요 정파, 로비 단체, 일반 공중의 인식이 복합적으로 얽혀 형성되는 결과물이다. 미국 내 여론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재차 강조하며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나타난 여론 변화 양상이 이례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 미국 여론은 대체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 민주당 지지층, 아랍계·무슬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동정 여론이 확산했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민주당 지지층은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이 지나쳤다고 평가했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에 공감한 여론도 증가했다.¹⁶ 2023년 이래 단기 변화가 컸지만, ‘이스라엘 선호’라는 장기 추세에 반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미국 내 반유대주의 정서가 확산하면서 유대계 커뮤니티가 안전 문제에 큰 우려를 표한 것은 위와 비슷한 맥락의 변화다. 2024년 미국 유대인

15. David Montgomery, “What Americans think about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YouGov US* (October 5, 2024), <https://today.yougov.com/politics/articles/50639-what-americans-think-about-the-israeli-palestinian-conflict>. ([표 2]는 2023년 10월 7일, 2025년 3월 15일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전쟁 발발 전후 지지정당별 인식 변화는 본문의 “Sympathies over time” 그래프를 참고하기 바란다).

16. Jennifer Benz, Trevor Tompson and David Sterrett, “Public opinion of the Israel and Hamas conflict nearly a year after the October 7th attacks,” *AP-NORC Center* (October, 2024), <https://apnorc.org/projects/public-opinion-of-the-israel-and-hamas-conflict-nearly-a-year-after-the-october-7th-attacks/>; Would you say the military response from Israel in the Gaza Strip has gone too far, been about right, or not gone far enough? (지나쳤다 Gone too far, 적정했다 Been about right, 충분치 않았다 Not gone far enough)

위원회(American Jewish Committee)의 보고서 「미국 내 반유대주의 현황(State of Antisemitism in America)」에 따르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유대계 미국인 90%가 미국 내 반유대주의가 증가했다고 봤고, 77%가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고 답했다. 최초로 과반수(56%)가 반유대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행동을 변화시켰다고 했으며, 이는 2022년(38%)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였다.¹⁷

미시간, 미네소타 등 아랍계·무슬림 유권자 밀집 거주지를 중심으로 바뀐 여론과 2024년 미 대선 국면에서 드러난 이들 유권자의 표심 변화를 무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는 달라진 미국 내 여론과 그에 따른 투표 행태 변화를 근거로 든다. 실제 아랍뉴스와 유고브(YouGov)의 아랍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잘 해결할 후보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후보가 더 높은 평가(트럼프 39%, 해리스 33%)를 받았다.¹⁸ 또 대표적 경합주 미시간 디어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2%를 득표한 반면, 해

-
17. 유고브와 이코노미스트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18~29세 사이 미국인 중 20%가 홀로코스트를 '신화'라고 생각하며 이는 30~44세(8%)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응답자 중 상당수는 유대인이 미국에서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했는데 특히 젊은 층은 65세 이상보다 이에 동조한 비율이 약 5배 높았으며 (28% 대 6%), 이는 젊은 층 내 반유대주의 인식의 확산 가능성을 시사한다. "One in five young Americans thinks the Holocaust is a myth," *The Economist* (December 7, 2023) <https://www.economist.com/united-states/2023/12/07/one-in-five-young-americans-thinks-the-holocaust-is-a-myth> 이스라엘의 강경 우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 보수층의 지지가 강해지면서, 미국 유대인과 이스라엘 국민 간 거리는 더 벌어지고 있다. 미국 유대인들은 대체로 자유주의 성향을 가지며, 팔레스타인과 평화 공존, 민주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과거와 같은 전폭적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유대계 미국인 커뮤니티와 이스라엘 간 이 거리감 증가는 향후 양국 관계에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대계 성인의 45%가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유대인 정체성의 "본질적 요소"라고 여기나 37%는 "중요하지만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16%는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유대인 정체성에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Abbas Al Lawati, "Why American Jews are distancing themselves from Netanyahu's government," *CNN* (March 24, 2023) <https://edition.cnn.com/2023/03/24/middleeast/us-jews-israel-smotrich-mime-intl/index.html>; Justin Nortey, "U.S. Jews have widely differing views on Israel," *Pew Research Center* (May 21, 2021),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1/05/21/u-s-jews-have-widely-differing-views-on-israel/>.
18. 중동 문제 해결에 더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와 해리스를 꼽은 비율이 38%로 같았다. "Arab News-YouGov poll predicts huge Arab-American turnout in upcoming election, Palestine tops priorities," *Arab News* (October 21, 2024); <https://www.arabnews.com/node/2576167/media>; Filip Timotija, "Trump tops Harris by 2 points among Arab American voters: Survey," *The Hill* (October 22, 2024) <https://thehill.com/homenews/campaign/4946492-trump-harris-arab-american-voters/>.

리스 부통령은 36%로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이 이 지역에서 압승한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¹⁹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핵심 지지층을 의식해 기존 친이스라엘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일부 진보성향 의원은 팔레스타인 지원을 주장하며 친이스라엘 행보를 견제했지만, 미국 의회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초당적으로 지지해 왔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며 의회의 견제에 마주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물론 여론과 별개로, UN을 통한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 문제 등에 있어 팔레스타인에 제한적 조치를 일부 허용하는 ‘거래적 외교’를 펼칠 수는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여론이 바뀌었다고 해도, 장기 추세로는 미국인의 친이스라엘 성향이 지속됐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약 요인이 되긴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미국 내 아랍계·무슬림·청년층 유권자의 반발, 정책 커뮤니티 및 중동 지역 여론 악화, 네타냐후 총리의 독단적 강경책 강행에 따른 미국-이스라엘 관계 악화 등을 겪으며 외교 전략을 조정할 것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일 것이다.²⁰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 의회 등의 반발로 미국이 가자지구를 접수해 팔레스타인 주민을 추방하고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트럼프식 ‘가자 구상’을 철회한 것은 그 예외이다.²¹ 미국인 47%가 ‘가자 구상’을 부정적으로 본 점(긍정 13%, 모름 40%)²²은 입장 변화의 배경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중동 내 주변국의 강한 반발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

19. City of Dearborn, “2024 Election Results & Data,” *Election Results & Data* (November 5, 2024) <https://dearborn.gov/resources/voting-elections/electionresults#>.

20. 장지향·이희수, “미국의 對이스라엘-하마스전 외교전략: 변화와 전망,” 아산 이슈브리프 2024-13.

21. 이해준, “가자지구 주민 추방 않겠다”는 트럼프에 하마스 “환영” 중앙일보, 2025년 3월 13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0492>; 이혜진, “가자 구상’ 한발 물러난 트럼프... “내 계획 강요 안 하겠다”” 조선일보, 2025년 2월 14일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2/23/LPL3GA26QNGNJAGAJWYMUQDGBI/.

22. Michael Lee, “New poll shows what Americans think of Trump’s performance in second term,” *Fox News* (February 9, 2025). <https://www.foxnews.com/politics/new-poll-shows-americans-think-trumps-performance-second-term>.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달라진 미국 여론과 별개로 친이스라엘 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이례적으로 경합주 내 아랍계·무슬림 유권자를 겨냥한 선거 캠페인에 공을 들였으나, 당선 후에는 이들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줄면서 공화당 핵심 지지층만 보며 기존 정책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Ⅲ.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대응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

1)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거래식 외교 안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동에서도 자국의 이익에 기반한 거래식 외교, 지불 능력을 중시하는 동맹관, 신고립주의를 내세우며 미국 정부가 전통적으로 강조하던 동맹·인권·민주주의 가치를 유기할 것이다. 2기 행정부는 입법·사법·행정부까지 장악한 데다 당선인 코드에 맞는 충성파로만 내각을 채우고 있어 더 강력해진 ‘트럼프즘’을 선보이는 중이다. 따라서 역내 안보 상황이나 동맹 우방국이 처한 군사 위협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 우선주의에 맞춰 역내 군사 개입을 줄이고 탈중동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직접 견제하기 위해 중동을 떠나는 계획을 세우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힘을 집중해왔다. 아랍 걸프 산유국을 위시한 여러 역내 동맹 우방국은 이에 크게 실망하며 중국과 점차 밀착하고 있다. 더구나 이란의 군사 모험주의와 팽창주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역내 이탈 움직임은 미국의 신뢰도 하락을 부추겼다. 2024년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휴전 협상을 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이어가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내 국가들이 중국 편에 서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²³ 중국 또한 미국의 탈중동 전략을 파고들어 중동 산유국과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하고, 이들 산유국에 권위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 통제 기술을 제공하며 자국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중동 산유국은 대외 군사 안보는 미국에, 대내 체제 안정을 위한 감시 통제 체계는 중국에 각각 의지하려 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2기 행정부 엘리트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2025년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단행할 것이고, 철군 후 특히 이라크에서 이란

23. 중동 주둔 미군은 2008년의 29만4000여 명에서 2023년 4만5000여 명으로 줄었다. 군의 과학화와 경량화를 고려하더라도 미 동맹 우방국에는 불안한 수치다. Michael Robbins, Amaney A. Jamal, and Mark Tessler, “America Is Losing the Arab World: And China Is Reaping the Benefits.” *Foreign Affairs* July/August.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america-losing-arab-world>.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은 확대될 수 있다. 이란 최대 전략자산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대규모 제거 작전으로 거의 궤멸하면서 이란은 이라크 내 프록시인 이슬람 저항군의 전력 강화에 주력하며 조직 재정비를 꾀하고 있다. 이라크 내 미군의 임무가 2025년 9월에 종료 되면 약 2,500명이 철군하게 되면서 양국 군의 관계는 안보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게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라크 내 이란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서는 미군 철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과거 1기 행정부 시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복잡하게 얽힌 역내 안보 딜레마 앞에서 단기적이고 가시적 효과를 위한 철군 결정을 내렸다.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비용이 많이 든다며 시리아 주둔 미군을 대부분 철수하고 반ISIS 국제연합전선에서 핵심 지상군으로 싸운 쿠르드계 시리아 민병대인 인민수비대 지원을 중단했다. 철군과 지원 중단이 이뤄진 지 사흘 만에 튀르키예군이 국경을 넘어 미국 우방인 인민수비대를 공격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를 방관했다. 2020년에는 우방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배제한 채 이슬람 급진주의 조직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 철수를 준비했으며, 이는 탈레반이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재집권하는 데 결정적 기회로 작용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역내외 동맹 우방국을 상대로 중동의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한 방위 분담 비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은 동맹 우방국과 함께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예멘 후티 반군에 맞서 홍해 선단을 지키는 수차례의 작전을 적극 수행했다. 친이란 프록시인 후티 반군이 하마스에 연대를 표방한다며 민간 선박을 무차별 공격하자 미국과 영국이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바레인 등의 도움을 받아 후티 반군의 군사 시설을 대거 공습했다. 한편 후티 반군은 중국과 러시아 선박에는 안전한 항로 제공을 약속했고, 특히 중국은 이를 상업적 기회로 활용해 자국 선박의 운항을 독려했다. 전 세계 해운 회사들이 홍해 루트를 피해 아프리카로 우회하는 경로를 택하며 물류비용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전선이 펼친 작전 덕분에 글로벌 경제는 탄력적 회복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비슷한 위기가 찾아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더 많은 동맹 우방국에 다양한 형태의 비용 분담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포함한 아랍 걸프 산유국처럼 지불 능력이 충분한 역내 동맹 우방국은 대통령의 사적이고 주관적 기준에 따라 군사 지원이나 분담 요구의 정도가 바뀔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전략적 중요도와 미국 국내 유권자의 지원이 작동해 탈중동 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은 역내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

자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일 뿐 아니라 뛰어난 정보력과 첨단 군사 기술력을 보유했다. 미국의 중동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충성과 지지층인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도 커뮤니티는 이란을 응징하고 '복음의 땅' 이스라엘을 지키자는 구호 아래 미국 정치권에서 활발히 활동한다.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지가 초당적 사안이지만 이들 복음주의자의 친이스라엘과 반이란 목소리는 유독 강경하고 미국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함에도 정치·경제 영향력은 상당히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우방국의 이해관계와 국제사회 규범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대외 정책을 활용할 것이고, 미국 민주주의는 이러한 포퓰리스트 제왕적 지도자의 전횡을 제어하지 못하고 더 퇴보할 것이다.

2) 이스라엘 강경 우파와 결속 강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민주당 정부와 달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둘러싸고 강경 보수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측근 엘리트 그룹을 지지하며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전후 가자지구 재건 사안과 관련해서도 이스라엘 강경파 입장을 적극 반영할 것이다. 또 아랍 걸프 산유국에는 재정 지원을 요구할 것이며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지원이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역량 강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두 국가 해법'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초기 하마스의 전력 재정비를 막아야 한다며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휴전 촉구에 세 번이나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방어권 보호와 하마스 궤멸 목표를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지상전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심각해지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은 즉각 휴전, 가자지구 인도주의 지원 작전, 전후 평화구상 구체화로 급선회했다. 미국 내 아랍계·무슬림·청년층 유권자 및 중동 지역 여론 악화, 네타냐후 총리의 독단적 강경책 강행으로 비롯된 미국-이스라엘 관계 악화 등도 이 변화에 일조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전후 평화 구상을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현 지도부 사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촉구했다. 미국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방해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에도 지도부 교체를 공공연히 압박했다. 나아가 서안지구에서 인권유린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군 소속 특수부대에 대한 제재 카드도 꺼내 들었다. 하지만 2024년 4월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하

자 미 하원은 6개월째 표류하던 260억 달러 규모의 이스라엘 안보 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중동 이슈를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는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세계 지도자 가운데 가장 먼저 당선자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귀환이 미국에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위대한 동맹에 대한 강력한 재헌신을 제공한다”고 했다.²⁴ 선거 캠페인 기간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전화 한 통으로 전쟁을 당장 끝낼 수도 있다고 했다.²⁵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 UN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에서 미국의 탈퇴를 명령했고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를 폐지하는 수준으로 구조조정 해 해외원조 프로그램 대부분을 중단시켰다.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공동으로 진행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인수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가자 재건 구상’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도 미국은 자금을 조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옮겨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42호를 위반했고, 2019년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공식 인정해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497호를 위반했다. 또 워싱턴 주재 PLO 대표부와 팔레스타인 주재 미 영사관을 폐쇄했고, UNRWA 전체 기금의 30%에 달하던 지원금을 중단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캠페인 기간 중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쟁 종식을 압박해왔고, 그 결과 하마스와의 휴전 협정은 트럼프의 취임식을 하루 앞둔 2025년 1월 19일에 발효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한 궤멸을, 하마스는 가자지구

24. “Prime Minister’s Office Announcement,” *Prime Minister’s Office* (November 6, 2024), <https://www.gov.il/en/pages/spoke-trump061124>.

25. Kanishka Singh and Nathan Layne, “Trump says he told Netanyahu to end Gaza war but criticizes ceasefire call,” *Reuters* (August 16, 2024), <https://www.reuters.com/world/netanyahu-denies-report-he-spoke-trump-about-gaza-talks-2024-08-15/>; Tia Goldenberg, “Trump promises to bring lasting peace to a tumultuous Middle East. But fixing it won’t be easy,” *AP* (November 7, 2024), <https://apnews.com/article/trump-mideast-netanyahu-israel-gaza-iran-wars-2e37305522d19bdc34e956586cce99bdy>.

에서 이스라엘의 전면 철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이번 휴전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15개월간의 전쟁 끝에 양측이 인질과 수감자 교환에 합의했다는 점은 교착상태에 빠진 분쟁 국면에 전환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진전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표명해온 ‘미국의 전쟁 개입 최소화’ 기조와 전쟁 회피 지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 남다른 친분과 결속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강경책을 지지하겠지만, 국제사회 비난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미 2024년 5월,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과 민간인 피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팔레스타인을 독립된 주권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2024년 11월에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이들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가자지구에서 이뤄진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민간인 공격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안보를 명분으로 밀착 지원과 공조를 이어가고 과정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확산된 미국 내 팔레스타인에 대한 동정 여론이 다시 고조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연합에 균열을 초래할 경우,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신고립주의와 탈중동 기조가 적용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이 재차 결렬되고,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으로 인해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가 급증할 경우, 국내외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도부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반하는 변수로 인식하고 대외정책 기조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3) 이란 강경 보수파를 향한 압박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이자 자국을 타도 대상으로 삼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의 강경 지배 연합에 대해 강력한 압박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과 역내 프록시 육성으로 대표되는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경제 제재와 군사 위협을 가할 것이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핵 합의 복원 협상을 준비하며 대이란 제재와 수출 통제가 조금 느슨해졌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늘어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정조준할

것이다. 이란을 향한 강경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이스라엘 강경 우파와 협력을 다질 것이다. 더구나 2024년 대선 캠페인 기간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암살 모의가 발각되고, 이란 해커들이 트럼프 후보의 자료를 해킹해 민주당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란은 ‘큰 사탄’ 미국과 ‘작은 사탄’ 이스라엘의 타도를 내건 이슬람 혁명을 중동 전역에 수출하고 역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무장 프록시 조직을 육성해 왔다. 더구나 현재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핵무기 능력에 가까워졌다고 알려졌다. 2025년 2월 국제원자력 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보고서에 따르면 8일 기준 이란은 최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274.8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AEA의 2024년 11월 보고서 이후 92.5kg이 늘어난 수치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란 당국은 IAEA의 투명성 검증 요구와 사찰에 불응하고 있고 협력 관련 실무 논의도 중단된 상태다.²⁶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6개국과 이란이 어렵게 타결한 다자간 이란 핵 합의를 전격 파기하고 고강도 제재를 시행했다. IAEA가 이란의 핵 합의 준수를 확인했음에도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맺어진 ‘나쁜’ 합의라며 대안도 없이 독단적으로 탈퇴를 선언했다. 2019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했고 2020년에는 혁명수비대 최고 실세이자 레바논, 가자지구,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에서 프록시 조직 육성에 매진해 온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 공격으로 암살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깜짝 결정으로 알려진 이 작전 후 이란 내 온건 개혁파 입지가 대폭 축소되고 강경 보수파가 득세하면서 이란의 군사 모험주의는 더 거세졌다.

이란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궤멸, 시리아의 친이란 바샤르 아사드 정권의 몰락으로 당분간 이스라엘, 미국과 정면 대결을 피하고 한발 물러서 전략적 인내를 감내할 것이다. 이어 붕

26. Stephanie Lichtenstein, “Iran accelerates production of near weapons-grade uranium, IAEA says, as tensions with US ratchet up,” AP (February 28, 2025). <https://www.ap.org/news-highlights/spotlights/2025/iran-accelerates-production-of-near-weapons-grade-uranium-iaea-says-as-tensions-with-us-ratchet-up/>; Stephanie Liechtenstein, “Iran further increases its stockpile of uranium enriched to near weapons-grade levels, watchdog says,” AP (May 28, 2024). <https://apnews.com/article/iran-nuclear-iaea-enriched-uranium-stockpile-9c86e5788a8bb45eab1337d5f6c10121>.

괴한 프록시 조직의 재정비에 힘쓰면서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러시아-중국 반미 연대에 더 의존할 것이다. 이란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자체 개발 드론에 이어 미사일까지 대량 생산해 전폭 지원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긴밀해질 것이다. 러시아는 자국에 무기를 공급하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이란에게 대이스라엘 직접 보복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²⁷

2024년 9월 이스라엘이 역대 역학 구도 재편을 위한 ‘새로운 질서’ 작전을 개시해 헤즈볼라의 거점 지역을 무차별 폭격할 때, 이란은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헤즈볼라를 전력으로 돕지 않았다. 대신 이란은 온건 성향 마수드 페제시키안 신임 대통령을 앞세워 UN총회에 참석해 핵합의 복원 협상과 제재 해제를 위한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따른 경제 파탄, 히잡 강제 착용 반대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이 가져온 민심 이반 앞에서 이란의 강경 보수파 지배층은 프록시의 운명보다 정권 생존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최고 종교 지도자가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음에도 2024년 3월 총선과 7월 보궐 대선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해 성난 민심이 드러났다. 에브라힘 라이시 전임 대통령 집권 시기 리알화 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은 40% 이상으로 치솟았으며, 국민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역대 프록시 조직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는 정권에 격렬히 항의해 왔다.²⁸

한편 이란 내부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의 경제적 어려움에 큰 도움을 주지 않으며 특히 중국은 대이란 투자보다 아랍 걸프 국가와의 경협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알리 페크리 이란 경제차관은 이란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가 만족스럽지 않다

27. Nikita Smagin, “Iran Shouldn’t Expect Russia to Come Riding to Its Rescue,” *Carnegie Politik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October 14, 2024). <https://carnegieendowment.org/russia-eurasia/politika/2024/10/iran-russia-military-aid?lang=en>; Patrick Wintour, “Putin reportedly calls for Iran to limit damage in any retaliation against Israel,” *The Guardian* (August 6, 2024). <https://www.theguardian.com/world/article/2024/aug/06/putin-reportedly-calls-for-iran-to-limit-damage-in-any-retaliation-against-israel>.

28. “Iran election hopefuls struggle to offer fix for economic woes,” *Reuters* (June 26, 2024).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iran-election-hopefuls-struggle-offer-fix-economic-woes-2024-06-26/>; Andreas Becker and Thomas Kohlmann, 2024, “Iran and the cost of a war with Israel,” *DW* (October 2, 2024). <https://www.dw.com/en/iran-and-the-cost-of-a-war-with-israel/a-70385852>.

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으며, 이란이 중국행 원유 수출을 보류하며 더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²⁹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직후 “미국의 대선 결과는 이란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며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문을 냈다.³⁰ 트럼프 후보가 대선 캠페인 기간 이란과 거래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고 하며 즉흥적 협상을 암시하기도 한 만큼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핵 합의 가능성도 타진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입법·사법·행정부부를 모두 장악한 만큼 트럼프 스타일의 핵합의 협상에 성공만 하면 공화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던 오바마 정부 시기보다 진행 과정이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스라엘 강경 우파와 결속을 강화하는 방편의 하나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대이란 압박 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이란은 위협 회피 전략을 취해 미국과 이스라엘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중국, 러시아와 연대를 통해 3국 간 무기 거래, 군사 훈련,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 미국은 이란의 가장 약한 고리인 경제 제재를 더 옥죄릴 것이다.

4) 아랍 걸프 산유국과 거래식 협력 지속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걸프 산유국과 군사 안보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들 산유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무기 거래 및 방산 협력에서 지불 능력에 근거한 거래주의 방식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국가에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므로 양국 협력은 심화할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자신이 중재한 이스라엘과 수니파 아랍 국가 간 데탕트를 촉진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장에 공을 들일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 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 회귀를 선언하면서 아랍 걸프 산유국과 에너지 협력 관계가 강화할 것이다.

29. Jonathan Fulton, “China doesn’t have as much leverage in the Middle East as one thinks—at least when it comes to Iran,” *Atlantic Council MENASource*, (February 1, 2024),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menasource/china-mena-leverage-iran-houthis-yemen/>.

30. Merissa Khurma, Alexander Farley, Faria Nasruddin, and Yusuf Can, 2024, “Reactions in MENA to US Presidential Elections,” *Wilson Center Insight & Analysis*; Liechtenstein, 2024. <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reactions-by-mena-us-presidential-elections>.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가 사우디아라비아였을 만큼 이들의 관계는 돈독하다.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보국 요원들이 이스탄불 주재 자국 총영사관에서 반정부 언론인인 자말 카슈끄지를 잔혹하게 살해하자 국제사회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을 거세게 비난했으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동참하지 않았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거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의회의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금수와 제재 요구를 거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수니파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 기념비적 데탕트를 가져온 아브라함 협정 체결 과정을 성공적으로 중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브라함 협정을 자랑스러운 치적으로 여기며 이번에도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 성사를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란-이란 프록시 간 첨예한 대립이 잦아들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직전 활발하게 진행되던 미국 중재의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국교 수립 논의가 다시 살아나며 제2 아브라함 협정 모멘텀이 도래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은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가자지구 공습을 비난했지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과 서구에 거세게 항의하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경제 실용주의에 기반해 파격적 개혁개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에 역내 불안정을 부추기는 이란 프록시의 약화, 첨단 기술국인 이스라엘·미국과의 협력 심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수니파 대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청년층 인식 변화에 맞춰 정권의 사활을 걸고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대 우방국 미국의 탈중동 정책과 최대 라이벌 이란의 군사 모험주의를 개혁 성공의 걸림돌이자 정권 생존의 방해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실존적 위협에 직결된다고 여긴다. 이미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의 선도로 바레인, 모로코가 시아파 이란의 팽창주의 행보에 맞서고 미국의 공백에 대비하고자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 데탕트를 맺었다. 이스라엘과 경제 협력은 이들 국가의 개혁 프로젝트를 도와 첨단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다.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된 후 이스라엘은 2021년에 새롭게 미 중부사령부의 파트너가 됐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은 중부사령부의 통합 방위 시스템하에서 이란발 미사일의 레이더 추적 정보를 공유했다. 2024년 4월 이란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 330여 기를 발사하면서 중동 전면전 위기가 급부상했으나 미국-이스라엘-아랍 간 통합 방공체계 협력이 가동하면서 이란발 발사체 99%가 격추됐고 전면적인 군사 대결은 일단락됐다.

통합 방공체계 활약의 배경에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 이란의 팽창주의 억제와 확산 방지라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 아랍 국가는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로 시민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반감이 극도로 고조된 시기에 아랍 무슬림 국가의 위상이 훼손될 수도 있는 정치적 우려를 뒤로하고, 이란의 위협 앞에 이스라엘과 전략적 연합을 택했다. 더불어 이들 국가는 미국-이스라엘-아랍 통합 방공체계 능력을 이란과 이스라엘의 첫 직접 충돌에서 절감했기에 앞으로도 미 중부사령부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시스템의 같은 일원인 이스라엘과도 정보 공유와 협력 과정을 확장할 것이다.³¹

그러나 트럼프 패밀리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친분에도 불구하고 양국 사이가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2019년, 이란의 프록시인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을 대상으로 감행한 대규모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은 1991년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의 쿠웨이트 정유 시설 공격 이후 최대 규모의 에너지 기반시설 타격으로, 국제 원유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별다른 군사적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걸프 산유국은 트럼프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기고,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외교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업 다각화, 외교 다변화를 위해 ‘룩 이스트’라는 아시아 지향 정책을 선언한 후 과학기술, 5G 인프라,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했고 대미 방위협정 협상장에서 중국과 적극적 군사 및 핵기술 협력 가능성을 비쳐왔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 중재에 나설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성지 수호국 위상을 앞세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인도주의 재앙에 처한 팔레스타인을 위해 이들의 독립국가 건설을 양보할 수 없는 조건으로 강하게 주장하며 이스라엘 강경 우파를 압박할 수 있다. 또 중재국 미국에 나토, 한미동맹 수준의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민간 핵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허용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이들 아랍 걸프 국가는 이란에 직접 맞서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은 채 중립 입장을 지키며 자국의 대미 레버리지를 높이려 할 것이다. 나아가 소다자주의 등을 내세워 경제 실용주의 정책에 집중할 것이고, 글로벌 사우스를 이끄는 중견국임을 강조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아랍 걸프 산유국 정책은 거래주의에 기반한 군사·안보 협력 강화

31. 장지향·이희수, “미·이스라엘·아랍국가 간 통합 방공체계 구축의 교훈: 공통의 위협인식,” 아산 이슈브리프 2024-24.

와 아브라함 협정의 추가 확대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주요 걸프 산유국이 미중 경쟁 구도 속에 레버리지를 키우고 있어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특히 경제 실용주의로 무장한 이들 산유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충동적이고 단기 정책 결정이 역내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의 미국 친화적 태도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동시에 이들 산유국은 2023년 중국의 증재로 성사된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도 위협에 빠뜨리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란의 프록시 무장 조직이 자국 석유 인프라를 직접 타격하거나, 역내 전면전에 불씨를 제공할 가능성은 걸프 국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인 만큼, 이들은 이스라엘과의 협력은 유지하되, 동시에 이란과의 긴장 완화 기조 역시 훼손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더욱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외 반이스라엘 여론을 의식하여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 없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협상 역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책

2024년 미 대선에서 중동 이슈는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 낙태권, 경제·일자리, 기후 변화, 미국 민주주의, 총기 규제, 범죄율 등 국내 문제에 밀렸다. 보편적으로 미국 유권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견제 등 대외 이슈보다 국내 문제를 더 중요시했다. 트럼프 후보도 대중에게 피로도가 높은 전쟁과 갈등 이슈 대신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 등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를 부각할 수 있는 국내 문제에 집중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이슈를 둘러싼 새 투표 행태는 주목 받고 있다. 아랍계·무슬림 유권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원과 휴전 실패를 강하게 비난하며 2024년 초부터 ‘#바이든을 버려라’ 캠페인을 벌였고 민주당 경선에서도 불신임 투표 운동을 조직했다. 이들 유권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2.2%로 소수임에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등 주요 경합주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이들의 표심이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분석도 있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이 2024년에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 투표를 해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랍계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미시간에서 민주당에 크게 실망한 아랍계·무슬림 유권자가 집권 시절 이슬람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던 트럼프 공화당 후보 대신 ‘제3후보’인 녹색당 질 스타인을 지지하면서 트럼프 승리에 일조했다는 분석이 있다.³²

이는 디어본 카운티 개표 결과에서 일부 드러났다. 트럼프 후보는 미시간에서 1%도 안 되는 차이로 승리했는데, 해리스 후보로선 아랍계·무슬림 유권자의 이탈은 그만큼 치명적이었다. 한편, 여러 출구조사에 따르면 유대계 유권자의 79%가 민주당에 투표하고 21%가 공화당에 투표했다고 답했다. 2020년 퓨리서치에 따르면 유대계는 전체 미국 인구 가운데 가장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자유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유권자층 가운데 하나다. 유대계 유권자 10명 중 7명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절반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리버럴’하다고 밝혔다. 또 유대계 73%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³³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백인 기독교 복음주의자 유권자의 8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2024년에는 더 높았을 걸로 추정된다. 이들 복음주의자 지지층은 2024년 7월 트럼프 후보가 유세 도중 총격을 받고도 살아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자 찬송가를 크게 합창했다.³⁴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첫 이

32. 장지향,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귀환과 미국의 쟁쟁한 정책,” 아산이슈브리프 2024-39; Adam Gabbatt, “Third parties could take enough votes from Trump or Harris to affect election,” *The Guardian* (November 4, 2024).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4/nov/04/third-party-election-votes-jill-stein-rfk-jr>; Domenico Montanaro, Elena Moore, Nick McMillan, Connie Hanzhang Jin, and Daniel Wood, “In this election, demographics did not determine how people voted,” *NPR* (November 22, 2024). <https://www.npr.org/2024/11/22/nx-s1-5199119/2024-election-exit-polls-demographics-black-latino-voters>.

33. “What the election results mean for Israel and the Jewish people,” *American Jewish Committee Global Voice* (November 7, 2024). <https://www.ajc.org/news/podcast/what-the-election-results-mean-for-israel-and-the-jewish-people>; “Jewish Americans in 2020,” *Pew Research Center Report* (May 11, 2021).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21/05/11/jewish-americans-in-2020/>.

34. “White evangelical voters show steadfast support for Donald,” *AP News* (November 7, 2024). <https://apnews.com/article/white-evangelical-voters-support-donald-trump-president-dbfd2b4fe5b2ea27968876f19ee20c84>; Edward Helmore, “Trump says maybe God saved him from assassination attempt to fix ‘broken country,’” *The Guardian* (September 2, 2024). <https://www.theguardian.com/us-news/article/2024/sep/02/trump-god-surviving-assassination-attempt>; Sarah McCammon, Jason DeRose, and A Martínez, “White evangelical voters overwhelming support Trump. Meet evangelicals for Harris,” *NPR* (October 29, 2024). <https://www.npr.org/2024/10/29/nx-s1-5159971/white-evangelical-voters-overwhelming-support-trump-meet-evangelicals-for-harris>; Antonia Hitchens, “Donald Trump’s West Palm Beach Victory Celebration,” *The New Yorker* (November 6, 2024). <https://www.newyorker.com/news/dispatch/donald-trumps-west-palm-beach-victory-celebration>.

스라엘 대사로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를 지명했는데, 허커비는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권리를 주장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과 ‘두 국가 해법’에 반대하는 강경파로 알려졌다. 허커비는 유대계는 아니지만 기독교 복음주의자 신자들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로 보수 진영 대표 친이스라엘 인사로 꼽히며 성경 예언에 근거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유대관계를 강조해왔다.³⁵

1)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은 국제 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미국의 대중동 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미국, 국제사회 등은 ‘두 국가 해법’을 오랫동안 제시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뜻하는 ‘두 국가 해법’은 정파적으로 차별적인 미국 행정부와 별개로 미국이 표방해 온 목표였다. 그러나 상호신뢰 부족, 장기간 지속된 갈등으로 이는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아래에서는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전후로 미국인의 두 국가 해법 인식을 비교했다. 미국인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해법 인식은 전쟁 발발 전후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모름 응답이 2022년 37%에서 2024년 33%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는 35%에서 40%로 상승했다. 나머지 응답의 경우에 공동 정부를 택한 비율이 소폭 줄었고, 이스라엘 단독 정부를 지지한 비율이 2022년 10%에서 2024년 18%로 8%p 상승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해결 인식에 있어 주목할 변화는 지지정당별 분석에서 드러났다. 먼저 지난 2년간 공화당 지지층 가운데 두 국가 해법(34→33%), 모름(33→28%) 응답을 택한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이스라엘 단독 정부를 지지한 미국인은 2022년 18%에서 2024년 26%로 8%p 상승했다. 즉,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전후로 공화당 지지층 중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긍정 편향이 일부 드러난 셈이다.

35. Michelle Boorstein, “Huckabee pick as Israel ambassador reflects long evangelical alliance,”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2, 2024).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4/12/02/evangelicals-israel-trump-huckabee/>; Yair Rosenberg, “The Real Reason Trump Picked Mike Huckabee as Ambassador to Israel,” *The Atlantic* (November 14, 2024).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24/11/west-bank-annexation-evangelical/680658/>.

민주당 지지층 내 인식 변화는 더 극적이었다.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 비율은 2022년 36%에서 2024년 48%로 12%p나 상승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에서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 상승폭이 대부분 민주당 지지층 내 변화에 의한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단독 정부를 지지한 비율은 차이가 없었고, 모름 응답자가 크게 줄면서 나타난 변화라는 점에는 더 유의해야 한다. 즉, 민주당 지지층 내 모름 응답은 2022년 38%에서 2024년 28%로 10%p나 줄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이들 중 대다수가 최근 2년 사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정파별 의견 차이는 미국 내 정치 양극화 결과로 해석된다. 인권 등을 중시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두 국가 해법을 중시한 반면에 공화당 지지층은 이스라엘 안보를 우선시하며 두 국가 해법에 비교적 낮은 지지를 보였다. 이와 같이 정파별로 다른 여론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 수립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18~29세 37%)에 비해 고령층(65세+ 45%)이 두 국가 해법을 선호했다. 또 유대계, 무슬림 응답자는 다수(46%, 41%)가 두 국가 해법을 지지했다.³⁶

[표 3] 미국인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해법에 대한 의견 (단위: %)

	2022년			2024년		
	전체	지지정당별		전체	지지정당별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두 국가	35	34	36	40	33	48
공동정부	16	13	19	13	11	15
이스라엘	10	18	3	18	26	5
팔레스타인	2	1	2	1	1	3
모름	37	33	38	33	28	28

36. Jenn Hatfield and Laura Silver, "U.S. adults under 30 have different foreign policy priorities than older adults," *Pew Research Center* (July 19, 2024), <https://www.pewresearch.org/2024/03/21/views-on-the-consequences-of-the-israel-hamas-war/> 응답지: "The land should be split into two countries, one country with an Israeli government and one country with a Palestinian government (Two states)," "All of the land is one country, governed jointly by Israeli and Palestinians together (Governed jointly)," "All of the land is one country, with an Israeli government (One state- Israeli govt.)," and "All of the land is one country, with a Palestinian government (One state- Palestinian govt.)."

2)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에 대한 의견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1999년 이전까지 40% 미만으로 주류 의견은 아니었다. 1999년에 53%로 최고치를 경신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는 2000년 40%로 급감했다가 2003년 다시 58%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대테러 작전 성공, 2002년 6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역사적 연설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당시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부시 전 대통령은 “테러로 타락하지 않은 새로운 지도자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주장했다.³⁷

그러나 이후,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2007년 가자지구를 장악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갈등은 다시 무력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지지한 미국인은 2008년 51%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반대 의견은 2003년 22%에서 2008년 2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양측의 무력충돌은 미국인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에 대한 선호를 꺾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는 40%대로 감소해 이를 유지했다. 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역내 테러리즘에 맞서 싸웠으나 하마스가 도발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친팔레스타인 접근법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강화한 탓도 있다.³⁸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는 2016년 44%까지 하락했다(반대 2008년 28%→2016년 37%).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에 대한 지지는 양극화됐다. 당시 이에 대한 미국인의 찬반 여론은 각각 46%, 42%로 그 격차가 가장 좁혀졌다. 특히 트럼프 대

37. “President Bush Calls for New Palestinian Leadership,” *White House archives* (June 24, 2002). <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2/06/text/20020624-3.html>.

38. J Eytan Gilboa, “Americans’ Shifting Views on the Palestinian-Israeli Conflict,” *Middle East Quarterly* (Fall 2021), <https://www.meforum.org/middle-east-quarterly/americans-views-on-the-palestinian-israeli-conflict>.

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미 대사관을 이전한 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반발 대신 보다 온건한 정책을 펼치며 미국의 향후 정책 변화를 주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국제사회를 놀라게 한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를 중재하며 아브라함 협정을 전격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협정에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크게 실망했다. 이러한 전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깊은 실망을 안겼고, 미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 협정 발표 이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지지한 미국인은 55%로 상승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반대 34%).³⁹

2020년대 미국인 절반 이상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지지한 결과는 지속됐다. 이러한 의견은 55% 내외에서 소폭 등락하며 일정 비율을 유지했는데, 이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선호하는 여론이 어느정도 안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조사에서 이스라엘 선호 편향이 일부 드러난 것과 모순된 결과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문제 해결을 바라는 의견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6] 미국인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에 대한 의견⁴⁰ (단위: %)



39. ibid.

40. Jeffrey M. Jones, "Americans' Views of Both Israel, Palestinian Authority Down," *Gallup* (March 4, 2024), <https://news.gallup.com/poll/611375/americans-views-israel-palestinian-authority-down.aspx>.

IV. 나가며

이 보고서는 다수 조사자료를 이용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검토했다. 2000년대 이래 미국인의 인식 변화를 누적 조사자료를 이용해 살펴봤고, 특히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달라진 미국인의 인식에 주목했다. 나아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확산된 팔레스타인 동정 여론과 아랍계·무슬림 유권자의 표심 변화 등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여론 등 미국 내 정치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대응을 포함한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서 친이스라엘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확산된 팔레스타인 동정론이 젊은 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주로 두드러졌다는 점을 봤을 때, 애초에 국내 여론에 관심이 없고 재선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노선까지 변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주요 조사 결과이다. 첫째, 미국인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봤다. 2018~2022년을 제외하면, 2004년 이래 미국인의 절반 내외는 양측 간 갈등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에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본 미국인 비율은 52%로 최고치(58%, 2004년)에 근접했다.

둘째, 2023년 하마스의 기습 공격 후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에 대한 평가는 시기별로 차이가 났다.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을 지나쳤다고 본 응답은 2024년 1월 50%까지 상승했다가 2024년 9월 42%로 다시 하락하며, 2023년 11월(40%)과 비슷해졌다. 같은 맥락에서 2001년 이래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동정 인식은 시기별로 다소 달랐다. 2010년을 기점으로 미국인 60%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을 더 동정한다고 했다. 이 경향은 2019년까지 지속됐으나, 이후 연이어 하락했다. 2019년 이후 이스라엘 사람을 동정한다는 미국인이 줄면서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동정이 늘었다. 실제 팔레스타인 사람을 동정한 미국인 비율은 2022~2025년 30% 내외가 됐다(2022년 26%, 2023년 31%, 2024년 27%, 2025년 33%).

셋째,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 사이 이뤄진 유고브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전후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단기 동정 인식은 이스라엘은 하락세, 팔레스타인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스라엘 사람을 더 동정한다는 미국인은 2023년 7월 42%, 10월 48%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해 2025년 3월 34%가 됐다. 반대로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동정은 2023년 3월 10%대에서 2025년 3월 21%까지 상승했다.

다음은 위의 결과를 고려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 미국의 중동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책 전망이다. 첫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동에서 자국 이익에 기반한 거래식 외교, 지불 능력을 중시하는 동맹관, 신고립주의를 내세우며 민주당 정부가 전통적으로 강조하던 동맹·인권·민주주의 가치를 유기할 것이다. 나아가 역내 안보 상황이나 동맹 우방국이 처한 군사 위협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에 맞춰 역내 군사 개입을 줄이고 기존에 주둔하던 미군의 철수를 서두르면서 탈중동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이자 자국을 타도 대상으로 삼는 이란의 강경 지배 연합에 압박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과 역내 무장 프록시 육성 등 이란의 군사 모험주의와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외교적 고립을 넘어 경제 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가용할 것이다.

셋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걸프 산유국과 군사 안보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산유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무기 거래 및 방산 협력에서 지불 능력 중심의 거래주의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국가에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국 협력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자신이 중재한 이스라엘과 수니파 아랍 국가 간 데탕트를 촉진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장에 공을 들일 것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전후로 나타난 미국 내 단기 여론 변화는 역사적으로 이례적이다. 특히 팔레스타인 동정론이 확산하면서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지지한 층이 늘어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변화는 전통적으로 친이스라엘 기조를 견지해온 미국 내 여론 지형에 일정한 균열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실제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미국 내 여론 악화, 네타냐후 총리의 독단적 강경책 강행에서 비롯된 미국-이스라엘 관계 악화 등으로 외교 전략을 바꿨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임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2024년 대선에서 승리했고, 바이든 행정부에 실망한 아랍계·무슬림 유권자로부터 의외의 지지를 받았다. 나아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달라진 미국 내 여론 변화가 젊은 층과 민주당 지지층에 집중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핵심 지지층을 고려해 더욱 강경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부록: 미국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식 조사⁴¹

문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있어서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을 더 동정하십니까?

			이스라엘	양쪽 모두	팔레스타인	
2023년	3월	11일	31	27	13	
		10월	7일	42	22	9
	14일		48	23	10	
	21일		41	28	13	
	28일		40	24	13	
	11월		4일	40	27	12
		11일	39	29	11	
		18일	39	29	11	
		25일	38	28	11	
	12월	9일	38	24	13	
		16일	38	28	12	
		23일	38	24	16	
		30일	39	25	14	
	2024년	1월	6일	35	29	14
			13일	37	26	14
			20일	39	27	18
27일			35	25	14	
2월		10일	36	27	16	
		17일	36	27	15	
3월		9일	32	27	17	
		16일	34	26	18	

41. 부록의 표는 지면상 본문에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David Montgomery, "What Americans think about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YouGov US* (October 5, 2024), <https://today.yougov.com/politics/articles/50639-what-americans-think-about-the-israeli-palestinian-conflict>.

			이스라엘	양쪽 모두	팔레스타인
2024년	4월	6일	31	28	18
		13일	34	26	16
		20일	33	26	18
		27일	31	28	17
	5월	4일	32	30	15
		11일	34	25	19
		18일	33	25	19
		25일	32	26	17
	6월	1일	32	27	19
		15일	33	26	16
	7월	20일	33	24	19
	8월	10일	33	26	19
		17일	35	25	17
	9월	21일	33	24	19
	10월	5일	35	25	17
		19일	36	25	17
11월	16일	31	30	16	
12월	21일	32	22	17	
2025년	1월	18일	32	28	15
	2월	8일	31	23	21
	3월	15일	34	22	21

ASAN
REPORT

미국인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인식 변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응 전망

발행일 2025년 5월

지은이 장지향, 강충구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Copyright © 2025 by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SBN 979-11-5570-306-9 35340 (PDF)



ISBN 979-11-5570-306-9